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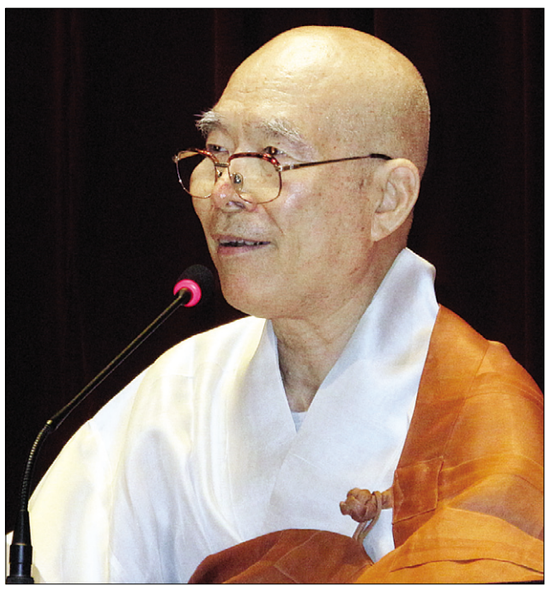
현삼요와 조용일시 등의 전기대용(全機大用)도 눈 속에 모래를 뿌림이요. 평지낙절(平地落節)이거늘 이것을 교가에서 주석을 붙이듯 알음알이 따라 해석하면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본분종사들이 금기하는 것이다"라고 절절이 밝혀 놓으셨다. 그뿐 아니라 근세의 서산 대사 역시 <선 교결>에서 간화선의 수승함을 간절하게 밝혔다. 또,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자성이 공했기에 삼계가 유심(唯心)이다. 삼계유심이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말함인데 일체만법(一切萬法)이 모두 공하여 쌍차쌍조(雙遮雙照)하며 진공묘유(眞空妙有)라, 이를 일러 마음이라 중도(中道)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취하지 않으며 양변을 초월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일법지소인(一法之所印)으로 자성청정을 빼고서는 하나도 성립될게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봉(中峰) 선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중봉 스님은 스승을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보이고 있다.

내 스승 고봉 화상은 항상 학인에게 이르기를 "오직 본참 공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행주좌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간절히 참구하라. 궁구하고 궁구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문득 화두를 타파하면 바야흐로 성불한지 이미 오래임을 스스로 알 것이다. 이 도리는 기왕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생을 요달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모두가 시험하신 묘방이다. 오직 귀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뿐이니 오래오래 물러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상응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지어감에 "첫째 입각처가 온당해야만 깨달음도 친절하니라.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다만 철저한 신심만 퇴전치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가르쳐 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교(敎)이다. 그 가르침의 근본 뜻을 선(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인 선에 들어가자면 직접 체험을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교를 객체화시켜서 지식화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 不立文字)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정견이 확실하게 서야한다는 말이다. 영상으로 비쳐진 대상화된 사물이라면 중도연기(中道緣起)와는 거리가 멀다.

정견(正見)이란 중도연기에서 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정견이 바로 서야 연기법(緣起法)과 무아(無我)사상 그리고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참선을 시작해보니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느라 공부가 순일하지를 못했다. 화두가 무엇인지 깊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자리를 화두(話頭)라고 한다. 그런데 그 화두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잘못 생각해 소소 영령한 주인공이 각자 따로 있는 걸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하겠다는 구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깨달아야 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푹 쉬지를 못하고 빨리 깨닫겠다는 속효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번뇌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곧 바닷물

참선이란 쉬고 쉬어서 의정이 독로하게 되면 비우고 또 비워 철저한 무(無)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순간 우주전체가 내가 되고 내가 곧 우주 전체가 된다. 즉 체로금풍(體露金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여러 해를 방황하다가 성철 스님 문하에 살 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는 곧 바로 참구해 들어가야지 생각으로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 참다운 평화는 부족함을 채워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에야 영원한 평화 참다운 행복이 온다. 간화선은 구하는 세계가 아니고 덜어내는 길이다. 돈오의 길이다. 돈오란 더 이상 덜어낼게 없는 상태다. 그런데 덜어낸다고 해서 덜어낼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다. 처음 참선한다고 앉았으면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게 마련이다 참선하는 이가 처음 화두 탈 때로 돌아가 보자.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하고 물으니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니라"라고 답했다. 우주의 대 진리를 묻는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참선하는 내가 있고 깨달아야할 뜻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할 참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 원인은 화두가 반야공성을 바로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화두를 통해서 소소영령한 주인공을 깨달아야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법무아도 아니요. 중도 연기법도 아니다.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화두이기에 다만 모를 뿐이라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만 모르는 놈을 참구하고 참구하되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배고픈 이가 밥 생각하듯 간절 간절하게 참구해야 한다. 참선할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망상번뇌다. 파도가 바닷물이다.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그대로 바닷물이다.

파도를 없애려고 싸우지 말라. 파도란 없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일어나는 바닷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바람을 잠재우라 그릇을 비우라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면 그릇은 그대로 허공이 가득하다. 그 허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허공이었다. 고로 본래 부처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부처도 닦아서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바로 서야 되고 정견에서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이 일어나야 한다.

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간화선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 글로 부득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중언부언 허물을 쌓는 일이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부처님대로부터 근래까지 간화선의 흐름을 대강 짚어 보았다. 결국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본분사이기에 각자 본인이 해결해야할 당사자의 몫일뿐이다. 노력하고 노력할 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일본 율종의 개조 감진 화상(鑑眞和上)

목숨 내놓고 일본행… "전법에 아까운 것 없어"

753년 65세의 중국 승려 감진(鑑眞, 688~763)은 제자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일본의 대중국 외교사절인 견당사가 귀국하는 배에 올랐다. 그러나 대사는 중국관헌의 엄중한 경계를 두려워 하선시키고 말았다. 이때 부사가 재빨리 자신의 배에 일행을 태웠다. 11월의 추운 겨울, 배는 동지나해를 지나는 중 광풍을 만나 남양으로 떠내려갔다. 한 달여의 표류 끝에 마침내 큐슈 남서부에 위치한 사츠마(薩摩)의 땅을 밟았다. 대사 일행이 탄 배는 말레이반도에 표착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200명 거의가 몰살당했다.



감진 화상의 좌상. 현재 국보로 일본 최고(最古)의 초상조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왕의 칙명으로 요에이(榮叡)와 후쇼(普照)가 전계사를 초청하기 위해 20년 동안 당에 체재하면서 이루고자 한 꿈은 성취됐다. 당시 양주 대명사(大明寺)에 주석하고 있던 감진이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감동, 일본에 계율을 전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11년간 6번의 시도 중 5번째 도항에는 태풍을 만나 남부 해남도에 표착, 돌아오는 길에 병을 얻어 실명마저 하고 말았다. 당나라는 백성의 밀입출국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처음에 감진이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제자들은 한결 같이 험난함을 예견,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감진은 "법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내가 가겠다"하고 스스로 앞장섰다. 감진의 전법에 대한 열정은 국법마저 초월한 것은 물론 수송수단이 불편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일본에 도착한 감진은 불교계 최고지도자인 대승정에 임명되고, 일본 최초로 율종을 열게 되었다. 수도 나라(奈良)의 토다이지(東大寺) 대불전 앞에 계단(戒壇)을 세우고 승려를 비롯해 상왕과 왕 및 귀족들 440명에게 보살계를 수여했다. 이 계단원의 지하에는 감진이 가져온 불사리를 묻어 그 상징성을 더했다. 이렇게 일본에 불교가 유입된 지 200여 년이 지나 정식 수계의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제까지 국가로부터 도첩(度牒) 대신 계첩(戒牒)을 주는 제도가 확립됐다. 감진의 전법의지에 감복한 제자들은 같은 배를 탔으며,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본격적인 수계의식을 일본의 승려들에게 처음으로 베풀었던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은 국가의 관장 하에 관승을 위한 득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민간에서도 스스로 수계를 행하는 자서수계(自誓授戒)도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시대에는 국내에 파계승이 증가해 그 통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승려들이 사미취급을 받았으므로 불교 고유의 전통적인 수계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감진의 활동이 넓어지면서 동서의 후쿠오카와 토치기 지방에 각각 칸제온지(觀世音寺)와 야쿠시지(藥師寺)에도 계단이 세워져 토다이지를 합쳐 세 곳의 국립계단이 세워졌다. 이를 천하의 3계단이라고 불렀다. 토다이지에서는 3사7증에 의해 <사분율>의 250계를 수여하는 수계식이 이뤄졌다. 나머지 두 사찰에서는 3사2증의 방식을 도입해 수계를 행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계사가 적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과의 차별을 통해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진은 이미 중국에서도 고승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4세에 출가해 율종과 천태종을 배웠다. 그는 종남산에서 활동한 도선(道宣)을 조사로 하는 남산율종을 승계했다. 도선은 <사분율>을 중시하면서 보살계의 영향을 받았다. 감진은 도선의 제자인 항경(恒景)으로부터 율종을 배운 후, 40세 무렵에는 이미 굴지의 전계사로서 명성을 날리며,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계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 율종의 초조로서 법을 심은 것 외에도, 승의(僧醫)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감진은 약초 감별에 뛰어났으며, 조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5차 도항 중 표류한 해남도에 1년간 체류할 때는 그 지역에 의학지식을 보급하기도 했는데 그 유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는 비전원(悲田院)을 세워 노인과 고아를 비롯한 빈민구제에도 심혈을 쏟았다. 말년에는 계율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나라의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 주석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마침내 전법의 사명을 다하고 이곳에 76세를 일기로 뼈를 묻었다. 토쇼다이지는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율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석가의 가르침에 귀의하자는 조사들의 외침 아래 계율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다. 감진이 주지로 있던 대명사는 문화대혁명 당시 파괴됐지만, 일본불교계의 복구지원에 의해 새롭게 재건됐다. 동아시아의 세계는 시공을 넘어 이렇게 불연으로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